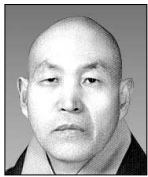


일주문



도재·선학원장학금 수여식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은 3월 10일 오후 2시 종로구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총 19명을 대상으로 도재장학금 및 제6차 선학원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한다.



12일 상임위원회의 개최
조계종 근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3월 12일 서울 종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 우수 복지관 선정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은 최근 서울로부터 2003년도 서울시 복지관 운영 평가결과, 프로그램 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됐다.



포교사단 창립 4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3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2)737-758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에
서울대 박세일 교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상임고문)는 2월 26일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도파안사서 3·1절 기념 특강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각범 교수가 3월 1일 3·1절 85주년을 기념해 안성도파안사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기' 주제로 특강을 했다.



민예총 신임회장으로
소설가 황석영 씨가 2월 27일 열린 2004년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분당 아탑고 교감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기본부 임창홍 지부장이 3월 1일자로 경기도 소재 분당 아탑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



조계사 제17대 신도회장에 재선
서울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은 2월 25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제16대 신도회 결산총회에서 17대 신도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불자를 위한 논어 강의'
도서출판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3월 10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국1호빌딩 407호에서 '불자를 위한 논어 강의'를 진행한다. (02)732-3039



“일산병원 내년 3월 1일 반드시 개원”

동국대 홍기삼 총장(사진)은 3월 4일 “일산 불교병원은 내년 3월 1일 개원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취임 1주년(3월 2일)을 맞아 이날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총장은 “신속적으론 박찬 감도 있지만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밀어붙여 보겠다”고 말했다.

교병원 개원이 이제 꼭 1년 남았다.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2월 28일)된 뒤 3월 1일자로 배정된 의과대학장을 개원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의료진 구성, 장비 구입,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개원은 예정대로 한다. 2008년이면 일산지역 인구가 35~40만으로 늘어나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국민은 ‘특성화’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의료진을 초빙하고 몇 개 진료과목을 특화시켜 ‘전국구 병원’으로 키우겠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다.” —취업 문제 등 불교학부 위기가 심각하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교수인력을 증강하고 조금씩 이나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 응용학문 몇 가지를 커리큘럼에 넣어 사회활동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 연구의 중심 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불문연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려대의 민족문화연구소나 성균관대의 대동문화연구소는 출판 서적만 갖고

취임 1년 맞은 홍기삼 東國大 총장

도 자금자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규모와 연구와 연구 인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계 지원이 꼭 필요하다. 두드러진 학자를 양성하려면 탁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총장은 ‘불교(계)’가 학교 발전의 결실물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학이념인 불교를 세계관적 토대로 삼아 학문적 가치가 가능할 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권형진 기자

東大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 과정

VIP 대거 등록 “굉장하네”

김수환 추기경·강원룡·조용기 목사 강사로

“평소 불교계에는 왜 인물이 없는가 한탄을 많이 했는데 동정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월 3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 동대문 의류쇼핑타운 ‘프레야타운’ 배관성 사장이 밝힌 감탄사다. 올해 처음 개설된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이 대거 등록(41명),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윤정하 제6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광 전 서울지검장, 정지천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장 등 이름만 대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동국대에 막암세미나실을 만든 구자선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불이화를 만들고 불이상을 제정할 윤근형씨, 한국공무원불자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한 안홍부 감사원 과정, 김재일 동산반야회장도 신입생 명단에 보인다. 종상(불국사 주지) 법태(은혜사 주지) 상광(화계사 주지) 남양사 대표이사,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 권영기 국방대 총장, 최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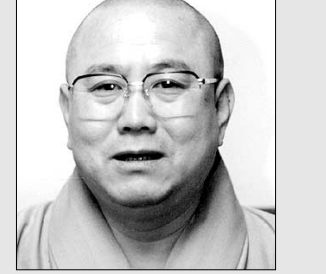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기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오리엔테이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명 스님도 다시 학생이 됐다. 교수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동국대 경영학 원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등이 강의를 맡는

다. 또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과 오대순 신부, 개신교의 강원룡, 조용기 목사 등 범종교계 인사들과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권형진 기자

통일법당 개원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지역 불교 활동 거점으로 운영”

“창립 12년 만에 자체 사무실과 법당을 가지게 돼 기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통일교육과 신심제고 터전 마련에 도움을 준 사부대중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월 3일 서울 성북동 179-74번지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 창립 12돌 기념 및 통일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 법타 스님(사진)은 개원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통일법당을 지역 불교활동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토론회나 강연회를 마련해 통일교육의 요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통일법당은 연건평 80평 2층 건물로 일반 가옥을 개조한 것이다. (02)741-9345-6 남동우 기자

천안에 사랑의 무료급식소 개원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는 최근 천안시 사직동 천안이 빌딩2층에서 ‘사랑의 무료 급식소’ 개원식을 가졌다. 천안 업성동 중앙교회 현광희 목사, 천안 불교문화원 천경 스님, 원불교 고진여 교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서 법혜 스님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극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급식소 개원을 계기로 앞으로 매일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11-457-0815

인사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남준 서울캠퍼스 △불교병원개원추진단장 배성환 △연구처장 박종훈 △총무처장 정창현 △정보관리실장 이종욱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미디어아트센터장 김정환 경주 캠퍼스 △관광대학장 하현국 △의과대학장 심재철 △기획처장 김용택 △연구교류실장 김홍희 △사회문화교육원장 임태평

쌀에 반야심경 새긴 기인

김대환 씨 별세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 김대환 씨(사진)가 3월 1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故 김대환 씨는 0.2mm의 조각칼로 쌀 한 톨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겨 1990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한성희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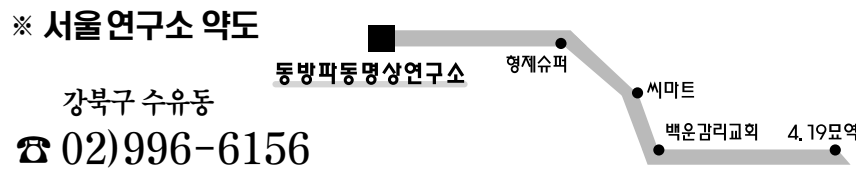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애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다수의 영혼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3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피,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